

사회

대인시장서 맛보는 '천원의 행복'



18일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내 '해뜨는 식당'의 한 종업원이 점심시간을 맞아 손님에게 팔 1000원짜리 백반을 준비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namj@kwangju.co.kr

"1000원짜리 백반·국수 드시고 힘내세요." 광주 동구 대인시장에 가면 단돈 '1000원' 짜리 백반과 국수가 있다. 밀가루값과 가스값 상승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생활 물가 고통은 이곳에서는 조금 먼 나라 이야기다. 소문난 된장국과 깔끔한 세 가지 반찬을 곁들인 백반이 1000원, 대인시장 주차장 입구

쪽에 자리 잡은 '해뜨는 식당'이 문을 연 것은 지난 6월 말. 대인시장에서 10년간 옷가게를 하던 김선자(여·67)씨는 그 동안 번 돈을 봉사활동에 쓰고 싶었다. 특히 세상살이가 빠듯한 차상위 계층에게 밥이라도 부담없이 먹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염려가 식당 개업의 계기였다. 문을 열자마자

1000원짜리 백반·국수 파는 김선자·이영미씨 소문난 된장국에 부담없는 가격 노인 등 단골 "손해보는 장사지만 이웃사랑 실천 뿌듯해요"

화제를 불러 하루 70~80명의 손님이 찾기 시작했다. 많을 때는 120명도 와서 단돈 1000원으로 한끼를 때웠다. 배를 든든히 채운 이들은 고맙다는 말을 남겼다.

"1000원에 팔면 혹시 이익은 남아요?" 묻자 "200명은 와서 먹어야 적자는 면할텐데..." 했다. 김씨 식당의 4개월 운영 수지는 '-500만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씨는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니 사명감에 봉사를 이어간다고 했다.

또 한 곳의 '1000원 식당'은 이영미(여·55)씨가 운영하는 장터국수. 지난 2008년 8월 문을 열었다.

대인시장 주차장에서 시장 쪽으로 50여m 들어가면 사거리가 있다. 2년간 재벌 알려져서 하루 100그릇은 판다. 주로 노인과 근처를 지나는 이들이 단골이다. 시장 상인들이 간식으로도 많이 찾는다.

저렴한 가격은 근처 노인들에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훌륭한 식단이다. 때로는 세 끼를

이 곳에서 해결하는 노인도 있다. 이씨는 돈이 없어 겨우 1000원 한 장 들고 이 곳을 찾는 이들을 보면 "마음이 잔하다"며 "그래서 더 장사를 그만둘 수 없다"고 했다.

이씨에게도 이익에 대해 질문을 하자 "많이 팔면 남아요"하고 싱긋 웃는다. 김씨와 이씨는 없는 이들에게 조그만 행복이라도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단돈 '1000원'때문에 시비도 많다.

밥을 너무 싸게 팔아서 인근 식당들이 장사가 되지 않는다며 민원제기도 여러 건 있었다. 김씨는 "마음은 몰라주고 그 가격에 팔지 말라는 압박이라도 들어오면 정말 야속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고 전했다.

갈수록 손해가 커질 게 뻔한 1000원 백반식당. 때로는 주위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한 1000원 국수집. 주인들의 푸근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대인시장 1000원 짜리 식당은 항상 북적일 것으로 보인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마을 이장들 담합 공유지 헐값 매각 고흥경찰 수사 착수

고흥경찰은 19일 고흥군 동일면 모 마을 이장들이 마을 공유지를 주민 동의없이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마을 이장 김모(67)씨 등 5명은 동일면의 덕흥, 구룡, 덕양마을의 일야 4만7000여㎡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11억5000만원을 받고 몰래 관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마을 주민들로부터 토지 매매를 위임받은 뒤 주민 137명의 토지매매 동의서와 회의록 등을 조작해 땅을 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마을 주민 200여명은 공유지가 청산년 우주체험관 근처에 위치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도 마을 이장들이 담합해 헐값에 땅을 팔았다며 최근 경찰에 진정을 접수했다.

김씨 등은 경찰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관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08년 해당 공유지에 대한 거래 과정에서 김씨 등이 계약금 1억3000만원 중 7000만원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토지 거래는 부동산 업체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iu@

나원침 (8175) 김종두



수능 부정행위자 광주·전남 4명 적발

광주·전남지역에서 모두 4명의 수험생이 수능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19일 광주시 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는 광주 3명, 전남 1명 등 모두 4명이다.

유형별로는 광주의 경우 반입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 소지 2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1명이었다. 전남에서는 1명이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99명이 수능부정행위자로 징계됐다.

부정행위 유형별로 보면 휴대전화,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이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4교시 응시방법 위반 38명, 종료령 후 답안작성 8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조만간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처리방안을 심의한 뒤 올해 시험성적을 무효 처리할 방침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공천헌금' 한화갑·최인기 무죄

광주지법 순천지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됐던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등 관련자 5명 전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9일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 비례대표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민주당 최인기 의원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공천헌금을 제공한 박부덕, 양승일 전·현직 도의원 2명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 대표가 당 대표

를 맡고 있었으나 박, 양씨 두사람의 공천과정에 개입하거나, 특별당비(공천헌금) 모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최 의원, 당시 조직위원장이던 유 구청장 등과 함께 공천헌금 명목으로 전남도의회 비례 대표인 박씨 등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최 의원은 징역 1년, 유 구청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박씨와 양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귀여운 꼭두각시춤

19일 광주시 북구 태봉초등학교(교장 김길순) 강당에서 열린 '2010 태봉재능잔치'에서 1학년 학생들이 꼭두각시춤을 추고 있다. 학생들은 1년 동안 준비한 사물놀이·클라리넷중주·태권주·리코더합주 등으로 솜씨를 뽐냈고 학부모들도 정성껏 만든 뜨개질, 한지공예 작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농민단체 '쌀값 보장' 곳곳 베풀 야적시위

광주·보성·화순·장흥 등서 농민대회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이 쌀값 보장을 요구하며 연일 베풀 야적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 농민회 소속 농민 100여명은 19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광주시 당 앞에서 '쌀값 보장 농민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한나라당에 항의 시한을 전달했다. 광주시 농민회는 성명에서 "2008

년 벼 40kg 한 가마 가격이 5만 6000원에서 2009년 4만 5000원, 올해는 4만 원대로 안되는 수준으로 급락한데다 쌀 생산량마저 30%나 감소해 더는 농민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이어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즉각 중단하고 쌀값 대란 해결을 위한 쌀 대책위원을 법 제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회는 집회 후 광산구 우산동 농협중앙회 광주본부를 방문해 나라 값 폭락을 조정하는 사후 정산제에 대해 사죄하고 쌀값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보성군 농민회는 이날 농협 보성군 지부 앞에 벼(40kg) 400가마를, 영광군 농민회는 농협 영광군 지부 앞에 벼 200가마를 각각 쌓아 놓고 쌀값 생선비 보장을 촉구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농민들은 "지난해 쌀값인 4만 5000원을 받아도 생산량 감소와 영농자재비 인상 탓에 15% 이상의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농민의 어려움을 없애도록 최소 4만 5000원 이상으로 쌀값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농민들은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올해 쌀 생산량은 감소하고 가격까지 하락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화순, 장흥에서도 농민회별로 쌀값 보장 요구 농민대회를 열었으며 다음 주에는 순천과 구례 농민회가 벼 야적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여경 귀문 20대 女 실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19일 술을 마시고 여경의 귀를 물어 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여·27)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병인 직원을 폭행한 데 이어 여경의 귀를 물어 뜯은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9월 26일 밤 9시께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를 등을 폭행하고 보호자 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여·30)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귀 뒷부분 1.5cm가량을 물어 뜯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건물생식' TV수리공 입건

○TV수리공이 가정집에서 주인 몰래 금품을 절취했다가 경찰서행.

○1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강모(26·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20분께 광주시 동구 소재동 화모(여·56)씨의 집에 들어가 안방 책상대 서랍 안에서 시가 2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가는 등 지난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해부터 광주 D 케이블 TV사의 협력업체 기사로 일했는데, "수리중에 아무도 보지 않아 순간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

/양승현기자 yang@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Touch 1 Card, featuring a card image and text: "2500만 고객을 위한 블록버스터 카드 Touch 1 카드 출시! 나라의 반을 움직일 카드, 고객이라면 이제 지갑 속에 하나만"

Weather forecast section for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and '오전 안개 주의' (Morning Fog Caution). Includes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regions and a table of temperatures and weather conditions for different areas.

Obituary section titled '생활 게시판' (Life Notice Board). Contains several notices, including a funeral notice for a woman named 김희순 (Kim Heesun) and a notice for a person named 김광영 (Kim Kwangyoung).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a funeral home.